

제5기 대학평의위원회 제1회 3차 회의록

- 일 시 : 2015. 4. 30.(목) 15:00 ~ 17:00
- 장 소 : 대학본관 3층 소회의실
- 참석자 : 김영만, 이동을, 박순권, 최창용, 최동주, 이상우, 이덕수, 최홍규
- 불참자 : 한태종, 정태성, 유창희

※ 회의안건

- I. 대학원학칙 개정(안) 심의
- II. 2014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자문

(최홍규 의원 기도)

의장: 성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1명 중 8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습니다.

의장: 성원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회의록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차회의록 보고)

의장: 첫 번째 안건은 대학원학칙 개정 건이군요. 지난 회의 때 유보시키면서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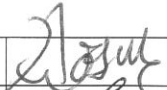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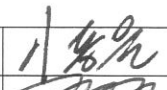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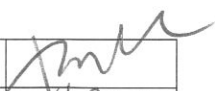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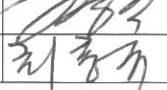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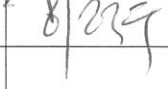

간사: 네. 지난 회의 때 대학원 학칙 내용 중 결석일수 1/4을 학칙과 동일하게 1/3로 변경 요청하셔서 요청하신 내용을 반영한 대학원학칙 개정안이 대학원 운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오늘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의장: 그럼 대학원학칙 개정안을 어떻게 할까요?

- 1: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2: 재청합니다.

간사: 가하면 예,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일동: 예

간 서 명	김영만		이동을		한태종		박순권	
	최창용		최동주		이상우	이상우	이덕수	
	정태성		최홍규		유창희			

의장: 첫 번째 안건인 대학원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두 번째 안건은 교비회계결산 자문 건입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 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은 제출하였습니다.

의장: 지난 회의 때 제가 의원님들께 요청 드린 자문의견도 제출되었나요?

간사: 네.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그럼 먼저 기획처에서 제출한 추가 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 설명을 한번 들어본 후 논의를 할까요?

- 3: 설명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문의견을 같이 검토하면서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을 추가 설명하고 의문나는 사항을 바로 질문하면서 보충 사항이 있으면 논의한 후 최종 자문의견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그럼 추가 요청 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명 듣지 않고 바로 제출된 자문의견에 대한 내용 검토 후 최종 자문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문의견 내용 간사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이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독립기관사업, 부대사업 등에 대하여 수지계산을 정확하게 진단하여야 하며 지출계산 시 건물 사용비, 참여인원 전체의 인건비 등 지출 요소를 정확하게 산입하여야 한다. 두 번째, 국제영재아카데미, 어린이영어도서관, EM연구개발단 등의 수입 지출을 분석하여 적자가 발생·예상되는 기관은 사업 유지 여부 검토 및 경영 개선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학교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입니다.

의장: 건물비나 인건비 등이 지출계산 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간사: 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독립기관에 대한 수지분석은 내년 3월 정도에 5개 독립기관에 대해 실시 예정입니다.

- 4: 수지 분석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어떤 식으로, 누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력, 건물 감가상각비, 임대료 계산도 해야 하고 행정지원에 대한 비용도 계산을 해야 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수지 분석을

간 서 명	김영만	이동을	한태종		박순권
	최창용	최동주	이상우	9.8.8	이덕수
	정태성	최홍규	유창희		

했다가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2011년에 외부 컨설팅을 했을 때도 건물 사용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도 변동이 심해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명시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직접 투입비용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6: 회계기준이 있지 않나요?

7: 회계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의장: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든 학교 살림살이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니 여기 계신 의원 중에 경제성 평가가 전문분야인 분이 있으면 수지 분석을 할 때 자문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평의원이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사께서 기억하셨다가 꼭 외부 용역이 아니라 내부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견 사항으로 넘어가시죠.

간사: 세 번째 의견은 “대학 진학 학생 수의 대폭 감소 및 정원 조정 등으로 향후 7년 내로 최대 약 4천 명의 재학생 감소가 예상되어 대학 내에 공간 공동화 현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잉여가 예상되는 공간 활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물 신축 등으로 교내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입니다.

의장: 이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간사: 현재 공간T/F팀에서 공간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의견사항 말씀해 주시죠.

간사: 네 번째 의견은 “학생 감원에 대비해 스타타워 기숙사의 공실률 발생을 막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입니다.

8: 스타타워 원리금 상환 및 보전금이 문제입니다. 현재 보전금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선 직원: 스타타워 지을 당시 BTO방식으로 지었습니다. 스타타워 유한회사에서 일부 차입을 해서 운영하고 차입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인데요, 운영이 잘 안 될 경우 일부 보전을 하기로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2009년 ~ 2012년 까

간 서 명	김영만		이동을		한태종		박순권	
	최창용		최동주		이상우		이덕수	
	정태성		최홍규		유창희			

지 약34억 원을 보전하였고 2013년부터 경영이 개선되어 자금을 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이 개선되어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9: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는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원리금을 몇 년 동안 상환해야 하죠? 20년이죠? 2009년부터 상환했으니 6년 지났고 14년 남았습니다. 근데 14년 긴 세월 동안 학생 수가 줄어들면 기숙사도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느 정도 선까지 학생 수가 유지돼야지 더 이상 보전금이 발생되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0: 그것보다는 기숙사 경쟁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11: 대략적이라도 예를 들어 학생 수가 8000명이면 공실률이 없을 거라든지 그런 예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 처음에 기숙사를 지을 당시 그런 부분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게스트 하우스로 쓰는 방법도 생각해서 화장실까지 넣어놨습니다. 게스트 하우스로도 변환 가능해서 외부 대관이 가능합니다.

13: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 수가 줄면 게스트 하우스 사용률도 같이 따라서 줄 것 같습니다. 학교에 공간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기숙사를 또 짓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운영을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은 2~3번 생각해서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예상 공실률을 엄밀하게 계산해서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14: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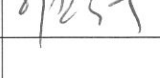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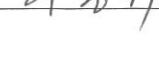
15: 외국인 기숙사를 또 짓는다고 했잖아요.

16: 그 건은 작년 대학평의원 회의 때 논의가 끝난 얘기이고 계약까지 다 되었습니다.

17: 외국인 기숙사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장: 000 의원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숙사 공실률을 막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의견은 국제교육교류원 관련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국내 학생 감소 대비를 위한 외국인 학생 유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지계산을 명확하게 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국제

간 서 명	김영만		이동을		한태종		박순권	
	최창용		최동주		이상우	이상우	이덕수	
	정태성		최홍규		유창희			

교육교류원은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모든 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유학생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출장이 필요하지만 경비 절감 등을 위하여 출장의 적절한 목적성과 출장 인원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외출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신중히 검토 후 출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입니다.

의장: 다섯 번째 의견은 지난 회의 때도 논의한 내용이군요.

18: 국제교육교류원은 뚜렷한 비전이나 성과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신이나 플랜을 구성원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희망적인 얘기만 자꾸 한다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 국제교육교류원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 저는 국제교육교류원을 독립기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무처와 비슷한 행정 부서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제교육교류원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사항에서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간사: 이번에 국제교육교류원장이 교무위원회에 포함되었습니다.

21: 독립기관처럼 부총장의 지휘를 받으니까 기획처도 모르고, 교무처도 모르고 의견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22: 올해부터 교무위원회의 들어가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 국제교육교류원이 독립적이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한 계획이나 플랜을 내놓고 공유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국제교육교류원이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의장: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여덟 번째 의견은 “개교 50주년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약 20억 원으로, 비용의 대부분이 적립금을 인출한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다. 손양원오페라의 경우 3억 3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 이러한 지출은 교육과 직접 연관이 없는 기념사업이다. 건축기조를 유지하여 온 학교 재정운영과 상반된 지출이다. 차후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에 관하여는 경영자가 별도의 자금을 유치하여 특정 목적사업으로 지출하여야 하며 교비회계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따라서, 향후

간 서 명	김영만		이동을		한태종		박순권	
	최창용		최동주		이상우	이상우	이덕수	
	정태성		최홍규		유창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효율성을 보장하는 검증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사전 검증을 통해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신설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24: 직접적인 교육하고 관계없는 사업을 했다는 것은 지적을 받아야 하지만,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소요 비용 20억중 8억은 호남기독교박물관 신축비용입니다. 기금에서 지출하기도 하고 호남기독교박물관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오페라 비용 3억3천만원 중 1억6천 수입이 있었습니다.

25: 저는 행사 비용 20억은 많고 건물 짓는 10억은 우리의 자산이니까 이것은 괜찮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통해 전주대 이미지가 좋아져 학생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아무리 자산이라 하더라도 박물관 짓고 관리 비용만 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지 말아야 하는 돈을 쓴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26: 핵심은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은 지양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27: 보이지 않는 홍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아홉 번째 의견입니다. “예산서와 결산서에 구체적 산출 내역이 없는 관항목이 있어서 결산자문에 어려움이 있다. 가능한 예산서와 결산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라.”

28: 기본적인 취지가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집행하라는 내용입니다.

29: 예산이란 게 항목에 맞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출 시 내용을 자세히 명시해서 지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0: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결산 자문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의장: 그럼 아홉 번째 의견도 그대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열 번째 의견입니다. “예산과 결산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총장은 경영

간 서 명	김영만		이동을		한태종		박순권	
	최창용		최동주		이상우		이덕수	
	정태성		최홍규		유창희			

의 책임자이니 비서실 및 총장의 업무추진에 대한 결산 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학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 현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공개를 하고 있죠?

31: 인근대학은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32: 인근대학도 일부 공개입니다.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열한 번째 의견입니다. “이월금의 적절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월금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문제점 혹은 자금 집행의 경직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월금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가능한 이월금은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맞는 얘기입니다.

간사: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경우 이월금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은 투명합니다. 건물이 노후화되면 유지보수를 위한 돈이 필요한데 그런 비용은 이월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건비 중 퇴직적립금 등도 있어야 합니다. 적절히 이월금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월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4: 이월된 금액 중 예산절감을 해서 이월되는 것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이월금 등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금 수입을 처음에 500억 예상했는데 100억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월금 내역도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못했던 사업을 다음 년에 추진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구분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그런 부분은 1차 추경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35: 이월금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니까요. 이것의 의미는 가급적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집행해서 이월금을 최소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진척도에 따라 이월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월되면 또다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고

간 서 명	김영만		이동을		한태종		박순권	
	최창용		최동주		이상우		이덕수	
	정태성		최홍규		유창희			

생각합니다.

36: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 외국인 기숙사의 경우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미 짓고 있다면 얘기할 수 없지만 문제는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간사: 지금 설계가 끝나고 계약이 진행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38: 그건 추경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그러면 다음 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열두 번째 의견입니다. “명절 선물비는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선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선물 대상자들의 여론을 파악하여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 제도가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교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재고 내지는 폐지를 권고 드린다.”

39: 예산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40: 계약직이나 조교는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그럼 지급 대상자를 고려해서 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열세 번째 의견입니다. “Star고시반 콘텐츠 구매 계획안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현재 교수연구동에도 동영상실습실이 외부업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 외부 업체 역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업체의 관리부서는 어디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Star 고시반과 업무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41: 교수연구동 동영상실습실은 폐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와의 문제가 있어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연구동 동영상실습실은 학교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 다. 콘텐츠 구입은 경찰행정, 공무원 준비 등 온라인 강좌를 위해 구매한 것입니 다.

42: 그런 콘텐츠 구매는 다른 부서와 중복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43: 도서관에서 구매하는 것은 오래전 것이 들어옵니다. 줄인다면 도서관에서 구매하 는 것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간 서 명	김영만		이동을		한태종		박순권	
	최창용		최동주		이상우		이덕수	
	정태성		최홍규		유창희			

44: 교수연구동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겹치지는 않습니까?

45: 교수연구동에서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Star고시 받은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열네 번째 의견입니다. “재단의 법정전입금에 대한 증액 노력이 필요하며, 법정 부담금에 대한 재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장: 이 의견은 이사장 및 이사들은 법정전입금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것으로 하시죠.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열다섯 번째 의견입니다. “실험실습비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학생 1인당 7만원의 실험실습비가 배정되어 오고 있는데 이를 교육투자 및 물가반영 등을 고려해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입니다. 현재 실험실습비는 1학기당 1인 7만원 1년이면 1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계열은 1년에 34만원입니다. 거기에 1년에 3억 5천 정도의 기자개 구입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위하여 실험실습비를 증액하면 좋지만 최근 등록금이 동결되고 정원이 줄다 보니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46: 학생들을 위한 학습비용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사항입니다.

의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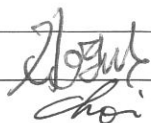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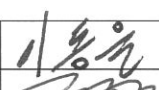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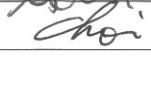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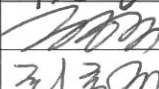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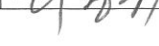
47: 한 가지 자료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과거에 보직을 겸직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전체 보직하고 보직수를 보면 겸직비율이 나오니까 2013년도 겸직비율과 2014년도 겸직비율을 보고 싶습니다. 겸직비율이 낮아졌다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역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간사: 분석 후 다음 추경 자문 시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그럼 지금까지 논의했던 열다섯 가지 의견 사항을 최종 자문의견으로 결의하는 것에 대하여 최종 성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동의합니다.

49: 재청합니다.

간 서 명	김영만		이동을		한태종		박순권	
	최창용		최동주		이상우	이상우	이덕수	
	정태성		최홍규		유창희			

의장: 가하면 예,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일동: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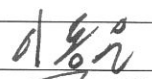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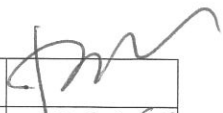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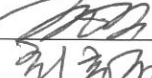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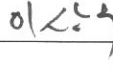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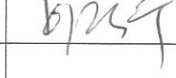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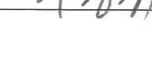
의장: 학교 발전을 위한 진지한 자문 감사합니다. 폐회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0: 폐회 동의합니다.

51: 재청합니다.

의장: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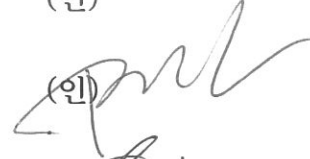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간 서 명	김영만		이동을		한태종		박순권	
	최창용		최동주		이상우		이덕수	
	정태성		최홍규		유창희			

2015. 04 . 30.

위의 사실을 확인함.

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 장	김 영 만	(인) 
부 의 장	이 동 을	(인) 
의 원	한 태 종	(인)
의 원	박 순 권	(인) 
의 원	최 창 용	(인) 
의 원	최 동 주	(인) 
의 원	이 상 우	(인) 
의 원	이 덕 수	(인) 
의 원	정 태 성	(인)
의 원	최 홍 규	(인) 
의 원	유 창 희	(인)